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5, pp.229-234, September 30,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229

JCCT 2022-9-27

인문치유 연구
-학생 사전 설문조사 분석-

A Study on Humanities Healing
- Student Pre-Survey Analysis -

박해랑*

Hae Rang Park*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치유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문치유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인문치유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계량적인 분석을 위해 BPS-Modell, 몸(Bio), 정신(Psycho), 삶의 네트망(Sozio)을 중심으로 각 10문항을 구성하였다. 몸(Bio)에 대한 문항에서 50%의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의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0%의 학생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의지에 따른 행동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Psycho)에 대한 문항에서 50%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20% 이하의 학생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네트망(Sozio)에 대한 문항에서 60% 이상의 학생들이 사회적 네트망을 잘 이루고 있다. 그러나, 10% 정도의 학생들은 삶에 대한 태도나 의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인간 삶의 목적도 '행복'이다. 인문치유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사회를 구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의 힘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인문치유, 감정치유, 행복, 몸(Bio), 정신(Psycho), 삶의 네트망(Sozio)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preliminary survey to study humanities healing methods for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student survey,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research direction of humanities healing and find an appropriate humanities healing method. For quantitative analysis, 10 questions were constructed, focusing on BPS-Modell, Bio, Psycho, and Sozio of life. In the question of the Bio, 50% of the students said they understood their body, mind, and will and acted accordingly, but 20% of the students showed that their actions according to their body, mind, and will did not fit. In the question of Psycho, more than 50% of students said they communicated well with their inner selves, but less than 20% of students did not. In the question of Sozio of life, more than 60% of students form a social network well, but about 10% of students have very low attitudes or meanings toward life. The ultimate purpose of humanities is 'happiness', and the purpose of human life is also 'happiness'. We hope that the power of positivity to realize a stable future socie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will be expanded through humanities healing.

Key words : Humanistic Healing, Emotional Healing, Happiness, Bio, Psycho, Sozio

*정회원,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8일

Received: July 30, 2022 / Revised: August 25, 2022
Accepted: September 8, 2022
*Corresponding Author: phr2030@naver.com
Dept. of Advertising & PR, Seowon Univ, Korea

Ⅰ. 서 론

급격한 경제성장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많은 감정을 소모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감정 노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감정에 대한 심각한 상처을 입히게 된다. 감정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감정 손상은 현대인들에게 지속적인 불안감을 야기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한다 [1].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힐링, 치유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감정치유에 대한 연구 범위는 한정적인 편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융복합적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감정치유의 한 방법으로 인문치유를 제안하고자 한다. 인문치유는 인문학 중심의 치유 방법으로 인간 삶의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인문치유의 방법을 통해 인간 삶의 목적인 '행복 추구'와 더불어 '감정치유'를 이루고자 한다.

2021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치유의 방법을 연구하고자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문치유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인문치유의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미래사회를 구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의 힘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문치유의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미래사회를 책임질 젊은 세대에게 좋은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치유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치유(healing, therapy)란 내재하고 있는 육체적, 생물학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요소 등 전체적 측면들에 아픔(illness)이 생긴 것이 온전해진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신체나 마음의 이상 증상으로 각 개인의 퍼스널리티, 사회적 조건, 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체험하는 것이다 [2]. 본 연구에서 치유는 육체적, 생물학적,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요소 등 인간 삶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 'healing'으로 정의한다.

인문학은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B.C. 106-43)가 사용한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에 기원한다. 오늘날의 인문학(humanitas)은 '인간 본성(human nature)' 또는 '인간(humanity)'을 의미한다. 인문학은 인간다움의 속성에 대한 탐구이다. 이러한 탐구는 인문학 안에 포함되는 문학, 사학, 철학, 예술 등의 학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간다움의 속성은 사실적·물질적 속성과 가치적(규범적)·정신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치적·정신적 속성은 전통적으로 진, 선, 미, 성, 정의, 자유, 평등 등을 말한다. 결국 인문학은 가치적 · 정신적 속성에 대한 앎, 지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 실천 활동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재화가 풍부히 생산되지만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풍요 속의 빈곤(poverty midst plenty)'이라고 표현한다. 현대사회는 또 다른 유형의 풍요 속의 빈곤에 직면해있으며, 그것은 '물질적 풍요 속의 정신적 빈곤'이다.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반면에 다양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인간 삶의 목적도 '행복'이다. 인문학과 그 실천 활동 모두 인간 삶의 일부이며, 인문학이 추구하는 행복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 행복'이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는 인문학을 '정신과학'으로 규정한다 [3].

인문학은 인간과 관계되는 학문이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학문이 인문학에 포함될 수 있고, 문학, 사학, 철학, 예술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을 포함한다. 인문학과 치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는 인문학과 인류 역사의 기원에 있다. 인문학은 인간다움의 추구에 목적을 두고,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 원시사회에서 제사장, 고대 그리스에서 신탁과 신전, 중세의 수도원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인문학은 종교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인간의 문제를 신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였다. 근대에도 경험과 과학에 의해 질병은 치료될 수 있으나, 정신이나 마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여기에 인문학이 치유를 담당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이다 [4].

둘째, 인문학의 반성적 기능에 의한 치유의 의미이다. 인문학은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탐구를 통해 도덕적 · 미학적 감수성을 길러주고 정신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며 논리적 사유 능력을 길러준다. 인문학은 사람들을 진정한 주체로 만들 수 있는 내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5].

셋째, 인문학은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규명되지 않은 치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는 의학적인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당사자가 '주체'로서 마주하고 공감하는 '이해'의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다.

넷째, 인문학은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치유의 의미도 가진다. 정신치료나 심리치료는 개인의 문제에 집착해 치료행위를 한다. 반면 현대인의 정신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 나아가 문명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인문학은 인간의 사유와 인식, 인간 간의 관계, 생활과 존재 기반, 역사와 변화 과정을 탐구하는 종합 학문이다. 또한 사회비판과 비판적 문제의식의 촉구에 있으며, 삶의 가치와 의미의 차원을 다룬다 [6].

인문학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우리 현실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개인적인 관점을 정립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인문학의 역할이며 인문학의 치유적 의미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한 학생설문을 통해 인문치료에 대한 학생요구와 실태를 조사하였다. 총 106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계량적인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은 BPS-Modell, 몸(Bio), 정신(Psycho), 삶의 네트망(Sozio)을 중심으로 각 10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1-10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하였다 [7]. 1-10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높으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인문치유에서 자신의 생각은 중요하며, 자신의 상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학생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상황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IV. 연구결과

1. BPS-Modell : 몸(Bio) 문항

몸(Bio)에 대한 10개의 문항이다. 문항별 설문과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조).

몸(Bio)에 대한 1번 문항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몸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 55.6%가 8-10 정도의 높은 점수를 체크하였다. 그러나 35.9%의 학생은 5-7이고, 8.5%의 학생은 4 이하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다. 2번 문항에서 몸과 마음의 일치에 대해 49.1%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34%의 학생은 5-7이고, 16%는 4 이하로 체크하였다. 5번 문항에서 약물 이외의 신체적 건강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44.3%가 8-10 정도, 40.6%의 학생이 5-7이고, 15.1%는 4 이하로 체크하였다. 6번 문항에서 몸과 표정이 숙면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해 51%는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34.8%가 5-7이고, 14.1%는 4 이하로 체크하였다. 이상 몸(Bio)에 대한 10개 문항에서 50%의 학생들이 8-10 정도, 20-40%의 학생들이 5-7이고, 10-20% 이하의 학생이 4 이하를 체크하였다 (그림 1. 참조).

2. BPS-Modell : 정신(Psycho) 문항

정신(Psycho)에 대한 10개의 문항이다. 문항별 설문과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정신(Psycho)에 대한 3번 문항에서 내면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50.9%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35.8%가 5-7이고, 13.1%가 4 이하를 체크하였다. 8번 문항에서 마음과 몸의 통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61.3%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33%가 5-7이고, 11.4%가 4 이하를 체크하였다. 10번 문항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57.6%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37.7%가 5-7이고, 16%가 4 이하를 체크하였다. 이상 정신(Psycho)에 대한 10개 문항에서 50% 이상이 8-10 정도이고, 20-40%가 5-7이고, 20% 이하의 학생이 4 이하를 체크하였다 (그림 2. 참조).

3. BPS-Modell : 삶의 네트망(Sozio) 문항

삶의 네트망(Sozio)에 대한 10개의 문항이다. 문항별 설문과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참조).

삶의 네트망(Sozio)에 대한 2번 문항에서 공동생활에 대한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79.2%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18.9%가 5-7이고, 1.8%가 4 이하를 체크하였다. 5번 문항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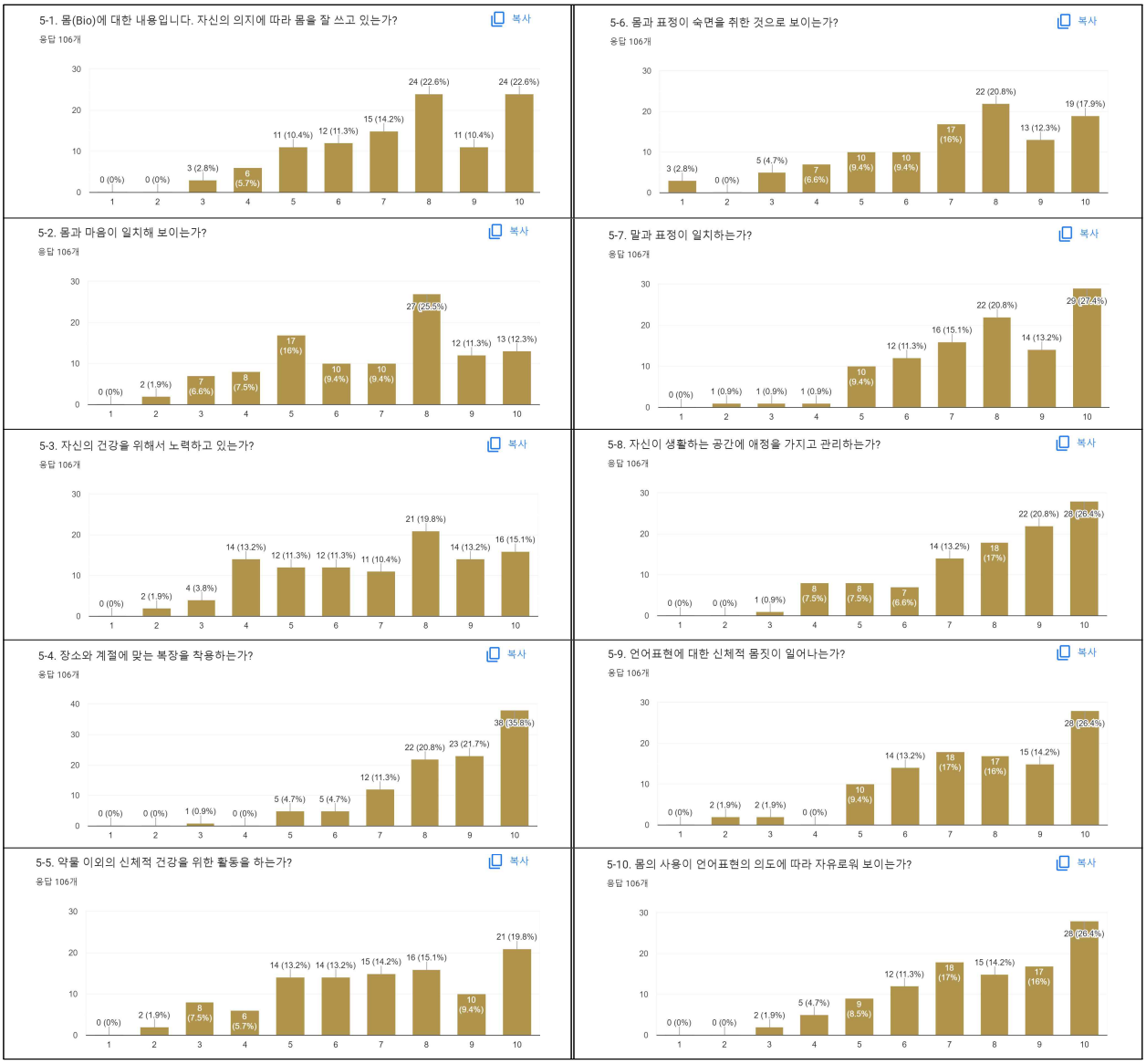

그림 1. BPS-Modell : 몸(Bio) 문항 응답률
Figure 1. BPS-Modell : Bio question response rate

대해 64.2%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35%가 5-7이고, 0.9%가 4 이하를 체크하였다. 8번 문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지에 대해 71.7%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26.4%가 5-7이고, 1.8%가 4 이하를 체크하였다. 10번 문항에서 삶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66.1%가 8-10 정도를 체크하였고, 27.4%가 5-7이고, 6.5%가 4 이하를 체크하였다. 이상 삶의 네트망(Sozio)에 대한 10개 문항에서 60% 이상이 8-10 정도이고, 20-40%가 5-7 정도이고, 10% 미만의 학생이 4 이하를 체크하였다 (그림 3. 참조).

IV. 결론 및 향후 과제

몸(Bio)과 정신(Psycho), 삶의 네트망(Sozio)에 관한 학생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현재 상황과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몸(Bio)에 대한 문항에서 50%의 학생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의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20%의 학생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 의지에 따른 행동이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Psycho)에 대한 문항에서 50%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과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나, 20% 이하의 학생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네트망(Sozio)에 대한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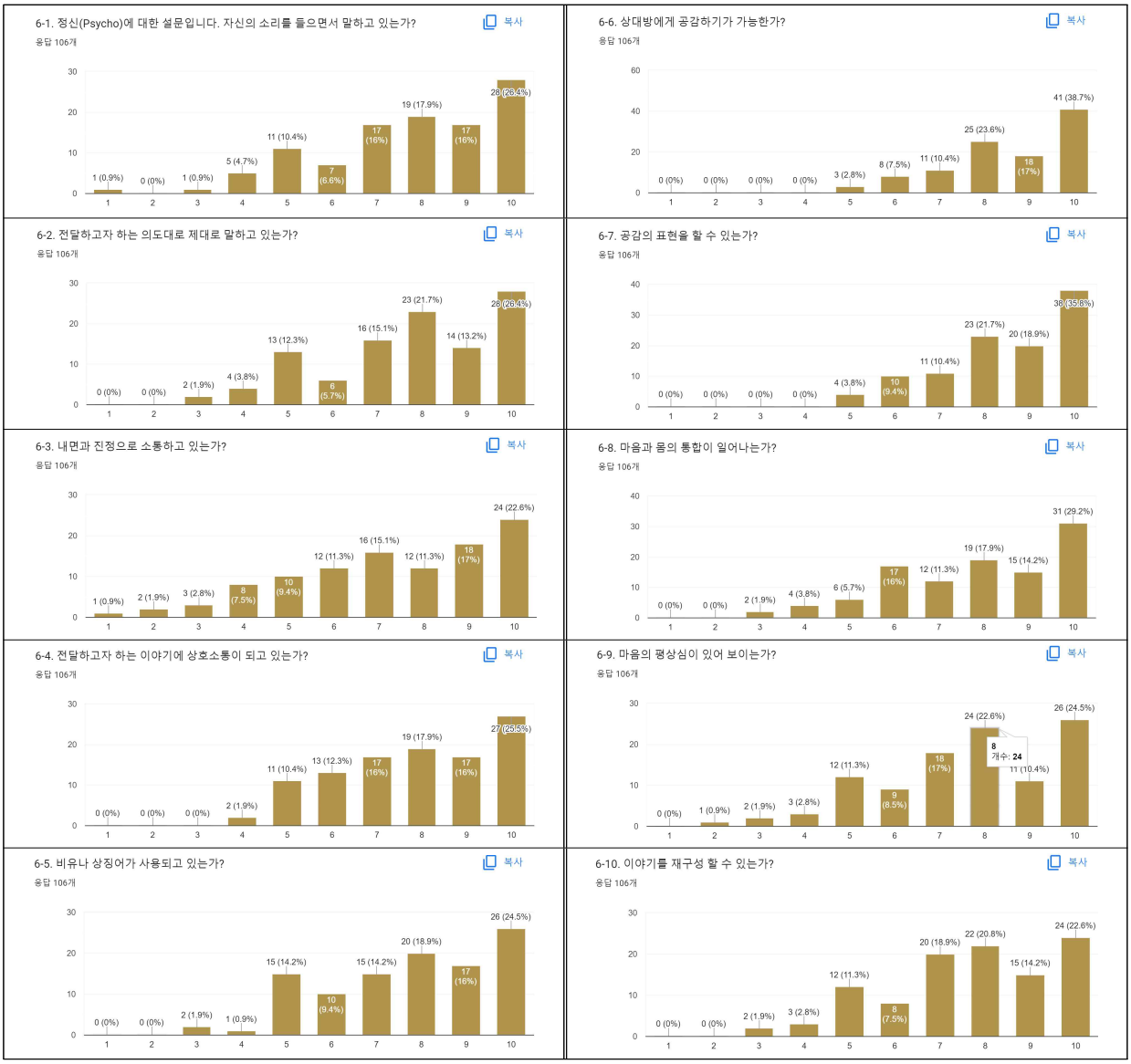

그림 2. BPS-Modell : 정신(Psycho) 문항 응답률
Figure 2. BPS-Modell : Psycho question response rate

에서 60% 이상의 학생들이 사회적 네트망을 잘 이루고 있으나, 10% 정도의 학생들은 삶에 대한 태도나 의미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치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주관식 문항에서 '마음에 대한 치유(31%) > 삶의 가치, 자존감 회복(15%) > 불안감, 진로에 고민(13%) > 주변인들과의 소통(11%) > 과거의 상처 치유, 정체성 혼란, 무기력' 등을 치유받고 싶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학생들의 인문치유에 대한 자신의 상황과 요구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난 듯하였으나, 실상은 감염병 재확산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with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인간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태초부터 투쟁의 시대를 거쳐 왔다. 인간의 삶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 속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인간의 삶은 투쟁의 연속선상이다.

인간의 지속된 감정적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인간은 이제 자신을 위한 치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인문학은 이러한 개인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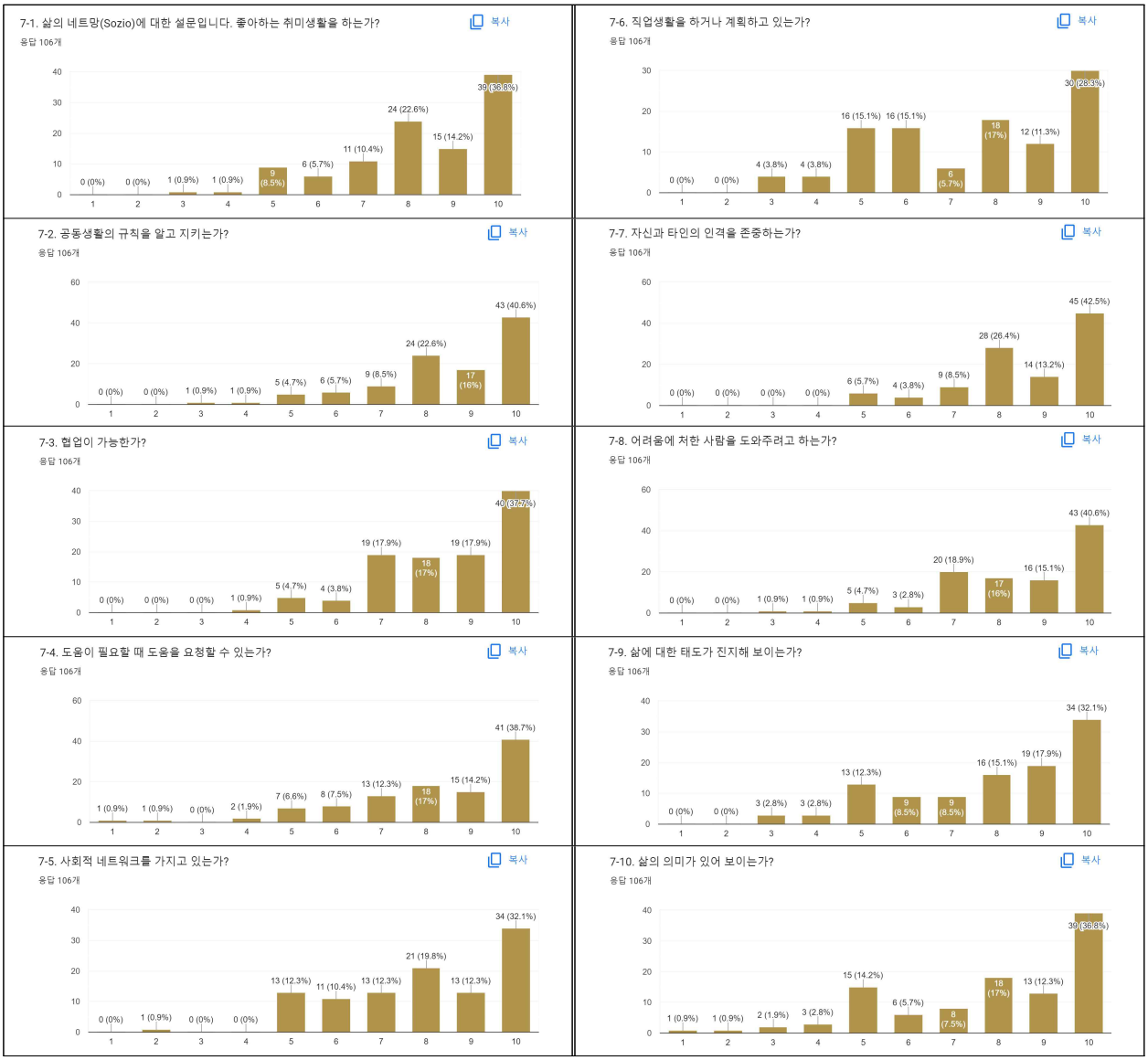

그림 3. BPS-Modell : 삶의 네트망(Sozio) 문항 응답률
Figure 3. BPS-Modell : Sozio question response rate

References

[1] Park, Hae Rang, Analysis of Emotional Healing Research Trends-Focused on academic papers from 2005 to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 223-229, 2021.

[2] Zhu, Su Li, Hong, Kwan Seon. Research on the elements of healing environment based on emotional needs; Focus on hospital healing space in women's hospitals, 2019 AIK Sp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asic Forming, 2019.

[3] Yoon Mi-young, *Treatment of Mental Illness with Humanities*, Lee Dam, pp. 13-24, 2018.

[4] Kang Shin-ik, *History of the Body, Culture of the Body*, Humanist, pp. 149-150, 2007.

[5] Park Yi-moon, *The Humanities of Integration*, Jiwa Sarang, p. 35, 2009.

[6] Yoon Mi-young, *Treatment of Mental Illness with Humanities*, Lee Dam, pp. 29-33, 2018.

[7] Cho Hee-joo, *Signatures of Affirmative (Through Literary Therapy)*, History of Education and Science, p. 236, 2020.